역사인물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자세 탐구

학습동아리명: 유지경성

목차

▶역사인물에서 배우는 인물 탐구 황희
▶역사인물에서 배우는 인물 탐구 세종대왕
▶역사인물에서 배우는 인물 탐구 이덕형
▶역사인물에서 배우는 인물 탐구 이순신
▶역사인물에서 배우는 인물 탐구 정약용
▶역사인물에서 배우는 인물 탐구 맹사성
▶역사인물에서 배우는 인물 탐구 이원익
▶역사인물에서 배우는 인물 탐구 이항복

□ 실록에서 배우는 인물 탐구 황희

- 생애

1376년(우왕 2) 음보로 복안궁녹사(福安宮錄事)가 되었다. 1383년 사마시, 1385년 진사시에 각각 합격하였다. 그리고 1389년에는 문과에 급제한 뒤, 1390년(공양왕 2) 성균관학록에 제수되었다.

1392년 고려가 망하자 일정 기간 은둔생활을 하며 고려 유신으로 지냈다[장수황씨 가문의 전승에 의하면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하였다는 설화가 전하지만 역사적 사실이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다가 1394년(태조 3) 태조의 적극적인 출사(出仕) 요청을 수용하여 성균관학관에 제수되면서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임하였다. 이후 직예문춘추관 · 감찰 등을 역임하였다.

1398년 문하부우습유(門下府右拾遺) 재직 중 언관으로서 사사로이 국사를 논의했다고 문책되어 경원교수(慶源敎授)로 편출되었다가, 1398년(정종 즉위년) 우습유로 소환되었다. 이듬 해 언사로 파직되었다가 그 해 2월경 문하부우보궐에 복직되었다. 언사로 파직되었으며, 곧 경기도도사(京畿道都事)를 거쳐 형조 · 예조 · 이조 · 병조의 정랑을 역임하였다. 1401년(태종 1)경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이 태종에게 천거해 도평의사사경력(都評議使司經歷)에 발탁되었다. 그 뒤 병조의랑에 체직되었다가 1402년 아버지의 상으로 사직하였다. 그러나 그 해 겨울 군기(軍機)를 관장하는 승추부의 인물난으로 기복되어 대호군 겸 승추부경력에 제수되었다. 1404년 우사간대부를 거쳐 승정원좌부대인에 오르고, 이듬해 박석명의 후임으로 승정원지신사에 발탁되었다.

1409년 참지의정부사가 되고, 형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 대사헌 등을 지냈다. 1411년 병조판서, 1413년 예조판서를 역임하고, 이듬해 질병으로 사직했다가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다. 1415년 이조판서 재직 중 송사(訟事) 처리와 관련해 육조에 문책이 내려지면서 파직되었다. 그러나 그 해 행랑도감제조(行廊都監提調)에 복위된 데 이어, 참찬 · 호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416년에는 세자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실행(失行)주1을 옹호하다가 다시금 파직되었다. 그 뒤 조정으로 복귀해 공조판서가 되었다. 그리고 평안도도순문사 겸 평양윤, 판한성부사를 역임하였다. 1418년 세자 폐출주2의 불가함을 극간주3하다가 태종의 진노를 사서 교하(交河)주4로 유배되고, 곧 남원부에 이치(移置)되었다. 세종의 치세가 시작되고 아울러 태종의 노여움이 풀리면서, 1422년(세종 4) 남원에서 소환, 직첩과 과전을 환급받고 참찬으로 복직되었다. 1423년 예조판서에 이어 기근이 만연된 강원도에 관찰사로 파견되어 구휼하였다. 그리고 판우군도총제(判右軍都摠制)에 제수되면서 강원도관찰사를 계속 겸대하였다. 1424년 찬성, 이듬해에는 대사헌을 겸대하였다. 또한 1426년에는 이조판서와 찬성을 거쳐 우의정에 발탁되면서 판병조

사를 겸대하였다. 1427년 좌의정 겸 판이조사가 되었고, 그 해 어머니의 상으로 사직하였다. 그 뒤 기복주5되어 다시 좌의정이 되었다. 이어 평안도도체찰사로 파견되어 약산성기(藥山城基)를 답사하였다. 이 때 약산주6이 요충지라 해서 영변대도호부를 설치한 뒤 평안도도절제사의 본영으로 삼게 하였다.
1430년 좌의정으로서, 감목(監牧)을 잘못해 국마(國馬) 1,000여 필을 죽인 일로 해서 사헌부에 구금된 태석균(太石鈞)의 일에 개입해 선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일국의 대신이 치죄에 개입함은 부당할 뿐더러, 사헌부에 개입하는 관례를 남기게 되므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그래서 한때 파주 반구정(伴鷗亭)에 은거하였다. 1431년 다시 복직되어 영의정부사에 오른 뒤 1449년 치사(致仕)주7하기까지 18년 동안 국정을 통리(統理)하였다. 그리고 치사한 뒤에도 중대사의 경우 세종의 자문에 응하는 등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출처: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배워야할 점

소신과 원칙을 견지한 정치적 자세
1418년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새 왕조 조선에 정치적 파란이 일어났다. 바로 당시까지 세자였던 양녕대군을 폐위시킨 사건이다. 세자의 교체는 자칫 엄청난 살육을 불러올 정도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다. 양녕대군을 폐위시킨 것은 계속되는 세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폐위시킨 태종도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어렵게 세운 새 왕조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황희가 세자의 폐위를 반대로 하고 나섰다. 당시 이조판서로 재직하던 황희는 대부분의 신료가 세자 폐위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폐장입유(廢長立幼;, 장자를 폐하고 아랫사람을 세움)는 재앙을 부르게 되는 근본이옵고, 또 세자가 비록 미쳤다고 하오나, 그 성품은 가히 성군이 될 것이오니, 치유에 주력하시기 바라옵니다.” 라며 국왕의 판단에 재고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태종과 주위 대부분 신료는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황희를 지탄하였다. 황희는 끝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반대하다가 마침내 강등되어 귀양갔고, 태종은 여러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양녕대군을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황희의 정치적 소신과 원칙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황희 [黃喜] - 소신과 관용의 리더십을 갖춘 명재상 (인물한국사, 이근호, 장선환)>

□ 인물 탐구 세종대왕

- 생애

<조선왕조실록>에 1397년 음력 4월 10일(양력 환산시 5월 15일)에 당시 정안군이었던 이방원의 6남으로 태어났으나, 사실상 3남으로 자랐다.

1408년, 12살에 충녕군에 봉해졌고 아버지가 왕위에 오른 후 12년 뒤인 1412년에 대군으로 진봉되었다. 단군 이래 최고의 독서광으로 책 하나를 붙잡고 마르고 닳도록 읽었다. 학문은 물론 미술, 음악, 수석까지 다양한 부분을 섭렵했고 오히려 대군이었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으므로 다양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대군으로서의 유복한 생활이 다재다능한 왕으로서의 실력을 키워주는 데 복이 된 셈이다.

아버지 이방원의 장자 계승의 원칙을 버린 결과 한국사 최고의 성군이 나왔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다. 본인의 성정이 어질고 마침 하극상이 없으니 좋은 정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태종이 상왕으로서 왕위에서만 물러나 세종의 보호자, 후견인 역할을 해준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재위기간

태종은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지 두 달여 만인 태종 18년(1418) 8월 10일 전격적으로 양위한다. 아버지 태종 이방원은 세종 4년(1422)에 숨을 거두었지만, 아직 조선 조정은 온전히 세종의 것이라고 하기엔 일렀다.

즉위 초의 상황은 세종이 진정한 군왕이 되기까지는 험한 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던 중 세종에게 1가지 반전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소위 말하는 '김도련 노비 뇌물 사건'과 '한양 대화재' 발생했다.

그 후, 한글 창조, 영토확장(4군6진 개척, 대마도 정벌), 수많은 과학기술 개발(자경루, 앙부일구,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등 인쇄술, 총통 등 무기개발) 농업의 향상(농사직설), 공공행정 강화(주종소 설립 등 행정개혁) 을 강화하고 예술문화(편경, ㄱ정간보)를 장려하였다.

- 말년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만 전념한데다 20대 초반부터 왕위에 올라 열정적으로 국정을 돌보았고 육식을 즐겨하는데다 특별히 몸을 쓰는 사냥 등을 즐겨하지 않았으므로 각종 질병에 자주 시달려서 병석에 누워 정무를 볼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질병으로 재위 24년(1442)부터 세자 향에게 국정을 대리청정하면서 훈민정음 창제를 이루었다.(1443)

<출처: 워키백과사전>

□ 배워야할 점

세종대왕은 교육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였고 지식이 성공적인 사회의 열쇠라 믿었다. 스스로도 끊임없이 공부하였고, 한글 개발을 담당한 학자들의 모임인 명예의 전당을 설립해 문맹률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외된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혁신과 창의성을 이루었다. 이 사회에 필요함에 대해 깊미 고민함으로써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글을 만들어내었다. 장자계승의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 인성으로 성군이 되었다.

조선시대 최고의 외교관이자 명재상 이덕형
리더는 유연과 엄격, 두 개의 얼굴이 필요하다

□ 선배, 동료, 후배, 적도 감탄한 인품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는 세종 치세이다. 그렇다면 세종 이외에 조선의 인재들이 가장 많이 등장한 시기와 그 왕은 누구였을까. 정답은 의외로 선조 시대이다. 임진왜란으로 무능한 임금의 대명사처럼 된 선조 시대가 세종 시대와 비견될 만한 인재들이 가장 많이 활약한 시기이다. 7년간의 전란, 그 후에 모든 것이 무너진 사회 혼란을 수습하며 국가를 재건해야 할 시기에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이들이 있어 조선의 명줄이 500년은 지탱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을 이겨낸 첫 번째 공로자로 서애 유성룡과 충무공 이순신을 꼽는다. 그 다음은 이원익, 이항복, 이덕형 즉 3리(李)를 든다.
그중에서도 이덕형은 그 공과 능력, 학식, 인품에 비해 조금은 덜 알려진 인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덕형에 대한 기본 상식은 '오성과 한음'이라는 명콤비의 학자와 재상으로 대개는 오성 이항복과 한 묶음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음 이덕형은 임진왜란 때 보이지 않은 큰 공을 세운 뛰어난 재상이었다.
그는 부산포로 침략한 왜군이 첫 협상 제안을 할 때 파트너로 지목한 재상이었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로 명나라에 청원사로 가 명나라의 참전을 성사시켰다. 또한 거만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온갖 오만과 불손을 인내해가며 그들을 전장으로 이끈 접반사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덕형은 명문가 광주 이 씨 출신으로 당대 세도가 이산해의 사위였다. 20세에 과거 급제로 관리가 되어 학식과 인품 등에서 출중한 재능을 보여 31세에 대제학에 임명되었다. 대제학은 비록 정승보다는 직급은 낮았지만 육조의 판서, 한성부 판윤, 의정부 참찬과 더불어 정2품 '정경正卿'으로 불리며 매우 중요하고 존경받는 직책이었다. 대개의 경우 당대 최고의 학문과 이론을 겸비한 노련한 대신들이 임명되는 자리였다. 이덕형은 31세의 나이에 대제학이 되어 조선의 선비들을 이끌며 당대의 학문, 문장, 여론을 관장했다. 이처럼 젊은 나이에 대제학에 임명된 이덕형의 사례는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했다. 또 있다. 이덕형은 38세에 최연소 정승이 되었고 43세에 영의정에 오른 가히 비교불가의 기록을 갖고 있는 당대의 인물이었다.

이덕형은 위로는 왕부터, 아래로는 백성들까지 신뢰하고 존경한 인물이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덕형에게 심복했고 세상의 인심 역시 그를 따랐다. 이는 이덕형의 타고난 품성과 깊은 학문, 공정한 원칙 덕분이다. 이덕형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인 이항복은 이덕형보다 5살 위였지만 항상 친구처럼, 동료처럼 서로를 의지했다. 강직한 이원익도 원만하고 부드럽지만 원칙 앞에서는 대쪽 같은 이덕형을 신뢰했다. 이덕형은 스스로 적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는 상대와 소통하고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았다.

이덕형이 존경받는 것은 적을 만들지 않는 원만한 성격, 천재적인 학문과 문장 실력을 갖추었지만 이를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 맡은 일에는 목숨을 걸고 완벽하게 해내는 책임감, 엄격함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 명나라 참전을 확정시킨 탁월한 외교력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당시 조정은 영의정 이산해, 좌의정 유성룡, 도승지 이항복이었고 이덕형은 대사헌이었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올라왔다. 선조는 경복궁을 버리고 북으로 향했다. 그즈음 왜군은 기만전술과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강화회담을 제안했다. 이덕형은 임진왜란 발발 5년 전부터 3년 동안 사신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당시 이덕형을 상대했던 일본의 승려 겐소는 이덕형의 풍부한 학식과 인품을 존경했고 임진왜란에 종군한 겐소는 협상 파트너로 이덕형만을 원했다. 병조판서를 맡은 절친 이항복이 만류했지만 이덕형은 홀로 남쪽으로 향해 왜장과 마주했다. 겐소는 “우리는 명나라로 가기 위해 조선에 온 것이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면 더 이상 전쟁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이덕형은 “만약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면 어찌 절강으로 직접 가지 않고 이곳으로 왔단 말이오? 이것은 실로 조선을 멸망시키려는 계책이오. 죽어도 요구를 들어줄 수 없소”라고 오히려 왜군을 꾸짖었다.

또 한 번의 만남이 있었다. 왜군이 평양성에 밀려왔다. 왜군은 이덕형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덕형은 종자 한 명을 데리고 가 다시 왜군을 꾸짖었는데 그 태도가 의연하고 당당했다. 이에 겐소는 “이덕형은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위급한 때에 말하는 것이 평소와 다름이 없으니, 범인은 참으로 미칠 수 없다”고 감탄했다.

이덕형은 설사 왜군과 강화 협상을 체결해도 왜군이 조선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선조에게 명나라의 구원병을 청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덕형이 명나라

로 가는 청원사가 되었다. 명나라는 애초 이 참전에 부정적이었다. 후금의 세력 확장도 이유였고 조선과 일본이 비밀리에 공모한다는 의심도 있었다. 참전에 소극적이던 병부상서 석성에게 “만약 조선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훗날 왜군은 물론이고 조선군도 모두 왜군이 되어 창을 잡고 명나라를 상대할 지경이 올 수도 있다”는 강한 논리로 명나라를 설득했다. 결국 명나라는 이여송을 대장으로 군대를 파견했다. 이덕형은 한성판윤 접반관이 되어 이여송의 접대를 담당했다. 거만한 구원군 대장 이여송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이덕형은 이여송을 달래고 설득해 군대를 움직였다. 그 첫 전과가 바로 평양성 탈환으로 조선군과 명나라군이 연합해 거둔 첫 번째 승리였다.

이덕형은 1593년 병조판서가 되어 전쟁을 지휘했다. 그리고 이조판서, 훈련도감 당상으로 그야말로 밤낮없이 뛰어다녔다. 1594년 이덕형은 모친상을 당했다. 당시 유교 전통은 부모상을 당하면 사직하고 최소 1년 상 이상을 치르는 것이 관례였다. 선조는 “나는 지금 왜적이 문제가 아니라 경이 조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 걱정된다”고 만류했다. 이만큼 이덕형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수행하는 해결사였다. 이순신의 제해권 장악, 의병들의 활약, 조선군과 명나라군의 연합작전 등으로 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덕형은 쉴 틈이 없었다. 이덕형은 경기, 황해, 평안, 함경도 4도체찰부사가 되어 밑바닥에 떨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민생을 챙겼다.

1597년 일본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재개했다. 정유재란이다. 조선은 명나라 군대를 요청했고 그 역할 역시 이덕형이 맡았다. 명나라 군의 지휘는 어사 양호였다. 이덕형은 나이가 한참 아래인 양호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이덕형의 진심에 탄복한 양호는 “이덕형의 인품과 실력이 출중하다. 우리 명나라에 있으면 예복을 입고 묘당에 나갈 인물이다”라고 칭찬했다. 선조는 이덕형의 공을 높이 샀다. 1598년에는 이덕형은 38세에 우의정, 이어 좌의정이 되었다. 이덕형이 사양했지만 선조는 “경이 정승을 맡기에 충분해 내가 한 것이니 사양하지 말라. 국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임명했다. 최연소 정승이 된 것이다.

이덕형의 아름다운 원칙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은 바로 포상이다. 선조는 전란이 마무리되자 훈포상을 했다. 호성공신, 선무공신 등으로 많은 사람이 공신이 되었지만 이덕형은 이에 포함되지 못했다. 호성공신은 말 그대로 선조를 모시고 피난길을 같이 한 신하들에게 내렸다. 조정 대신은 물론이고 내관들까지 받았지만 이덕형은 그 시기 왜군과 협상을 위해 적진 한가운데에 있었다.
선무공신도 마찬가지였다. 조정에서 이덕형의 녹훈 수여에 대해 공론이 분분할 때

이덕형은 이를 먼저 사양했다. 그에게 공신 작위는 별 의미 없는 명예였다. 그는 조선의 사직과 백성의 평안을 위해 전란의 중심에서 활약했고 전란 후에는 전란으로 무너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경상, 전라, 충청, 강원도 4도 도체찰사가 되어 백성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살폈다.

1602년 이덕형은 42세의 나이에 조정의 수반인 영의정이 되었다. 이덕형은 4년 동안 영의정으로 전쟁으로 망가진 나라를 재건하고 땅에 떨어진 백성들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이덕형은 영의정에서 물러났다. 2년 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했다. 이때가 1608년으로 이덕형의 나이 47세 때이다.

□ 유연하지만 원칙 앞에서는 대쪽같은 선비

당시 조선은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명나라에 이를 알리고 명나라 황제의 책봉, 즉 외교적인 인정을 받아야 했다. 광해군에 대해서 명나라는 책봉을 허락하지 않았다. 임해군 문제, 영창대군의 존재를 들어 광해군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광해군은 중국통이자 외교전문가인 이덕형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에게 명나라로 가 책봉을 받아오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덕형은 진신사로 두 번이나 명나라에 가 광해군을 정식 조선의 왕으로 인정받아왔고 다시 영의정에 올랐다. 당시 조정은 이덕형과는 일가이지만 북인계열의 이이첨이 장악하고 있었다. 남인 온건파였던 이덕형은 본래 당파에 휘둘리지 않았지만 원칙 있고 청렴하게 정사를 살폈다.

1613년, 대북파는 광해군의 아킬레스건이자 대안인 영창대군을 역모로 사형에, 영창대군의 생모인 인목대비의 폐서인을 주장했다. ‘박응서의 역모 자복’을 근거로 대북파는 연일 영창대군 사형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이덕형과 이항복은 이를 반대하며 대신 유배를 청했다.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강화로 보냈다. 그러자 대북파들은 영창대군을 옹호한 이덕형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다.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싶었던 광해군이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광해군은 “이덕형은 파직하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거론치 말라”고 정리했다.

광해군은 이덕형을 파직했다. 이덕형은 그 길로 경기도 남양주 부근 사저로 물러났다. 이덕형은 병을 얻었다. 그는 조정이 어지럽고 백성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것을 걱정하다 그 해 숨을 거두고 말았다. 54세의 아까운 나이였다. 그가 숨지자 먼저 파직되어 물러나 있던 이항복이 바로 달려왔다. 이항복은 이덕형의 염을 하고 묘지명을 직접 지어 이덕형의 죽음을 애도했다. 광해군은 이덕형의 죽음에 탄식을 하며

“그의 관작을 회복하고 현직의 예로 장례를 치루라” 명했다. 백성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고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덕형은 항상 당당하면서도 논리정연한 말로 상대의 호감을 사면서 상황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그러면서도 공정했고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한 인재였다. 평소에는 부드럽다가도 일에 있어서는 꼼꼼하고 원칙에 충실하며 책임감이 탁월했던 이덕형. 그가 재상으로서 보여준 리더십은 높은 직책, 이름을 떨치는 유명세, 남이 알아주기 바라는 공명심이 아니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가 같이 해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리더였다. 그에게서 배운다. 리더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하들에게는 따뜻하고 신뢰의 얼굴을 보여야 하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너그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 Citylife 제619호

□ 이순신의 생애와 업적

이순신(1545~1598)은 조선 인종 1년 3월 8일 서울 건천동(중구 인현동)에서 태어났다. 자는 여해, 시호는 충무다. 본관은 덕수로 아버지는 이정이고 어머니는 초계 변씨다. 그는 셋째 아들이었는데 두 형은 이희신, 이요신이고 동생은 이우신이다.
그의 가문은 한미하지는 않았지만 현달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의 선조들은 우뚝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관직과 경력을 성취했다. 6대조 이공진은 판사재시사(정3품)를 지냈고 5대조 이변은 영중추부사(정1품)까지 올랐다. 증조부 이거도 1480년(성종 11년)에 급제한 후 이조정랑(정5품)과 병조참의(정3품) 등의 요직을 역임했다.
그러나 이순신의 가문은 조부때부터 침체하기 시작했다. 조부 이백록과 아버지 이정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고 당연히 벼슬 길에도 오르지 못했다. 그 주요한 까닭은 이백록이 조광조 일파로 간주되어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묘사림의 핵심 인물은 아니었지만, 기묘사림이 시행한 별과에 천거된 120명 중 한 사람이었다.
이순신은 어린 시절 자신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뛰어난 인물을 만났다. 그는 나중에 영의정이 되는 서애 유성룡(1542~1607)이었다. 서로 세 살 차인 두 사람은 그 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국난에서 조선을 구원하는데 각각 문무에서 결정적인 공로를 세웠다.
이후 이순신은 서울을 떠나 외가가 있는 충청남도 아산으로 이주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조선 중기까지도 널리 시행되던 남귀여가혼(남자가 결혼한 뒤 처가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풍습)의 영향 때문이었다.(가난 때문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565년 이순신은 20세의 나이로 상주 방씨와 혼인했고 이회, 이울, 이면의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
어릴 때부터 무인의 자질을 보였지만 이순신은 문과 응시를 준비해왔다. 10세 전후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보면 그는 10년 정도 문학을 수업한 것인데, 무장으로는 드물게 난중일기와 여러 유명한 시편을 남긴 뛰어난 문학적 능력을 쌓은 데는 이런 학업이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혼인 1년 뒤 본격적으로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1572년 8월 훈련과 별과에 처음 응시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르던 중 타고 있던 말이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물론 낙방했지만, 다시 일어나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다친 다리를 싸매고 과정을 마쳤다.
무장으로서 이순신의 공식적인 경력은 그로부터 4년 뒤에 시작되었다. 그는 1576년 2월 식년무과에서 병과로 급제했다. 그의 나이 서른 하나였으며, 임진왜란을

16년 앞둔 시점이었다. 첫 임지와 직책은 급제한 해 12월 함경도 동구비보(함경도 삼수)의 권관(종9품)이었다. 이곳에서 햇수로 3년을 근무하고 1579년 2월 서울로 올라와 훈련원 봉사(종8품)로 배속되었지만 병조정랑(정5품) 서익이 가까운 사람을 특진시키려 하는 것을 반대하여 8개월 만에 충청도절도사의 군관으로 좌천되었다. 이순신은 그의 원칙을 고수하는 강직한 행동 때문에 크고 작은 곤경을 겪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얼마 뒤 파격적인 승진을 하게 된다. 1580년 7월 발포(전라남도 고흥군) 수군만호(종4품)로 임명된 것이다. 그러나 서익이 병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군기경차관으로 발포에 내려왔다가 이순신이 병기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고 보고해, 두 해 전의 관직인 훈련원 봉사로 다시 강등되었다. 이때 이조판서 율곡 이이가 이순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으나 이순신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중직에 있는 이를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훈련원에서 2년 넘게 근무한 뒤 이순신은 다시 강등되어 1583년 10월 건원보(함경북도 경원군) 권관으로 배치되었다. 그러나 여진족 침입에서 우두머리를 생포하는 전공을 세워 한 달만인 11월 훈련원 참군(정7품)으로 귀경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달 15일 아버지 이정이 아산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 소식은 이듬해 1월에야 이순신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3년 상을 치르고 1585년 1월 사복시 주부(종6품)로 복직했다. 그의 나이 마흔이었다.
그는 유성룡의 천거로 16일 만에 조산보(함경북도 경흥) 만호로 특진해 다시 변방으로 나갔다. 1년 반 뒤인 1587년 8월에는 두만강 하구에 있는 섬인 녹둔도 둔전관을 겸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해 가을 여진족이 침입해 아군 11명이 전사하고 군사와 백성 160여 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순신은 경흥부사 이경록과 함께 여진족을 격퇴하고 백성 60여 명을 구출했지만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이일이 이 사건을 패전으로 간주하여 두 사람 모두를 백의종군에 처했다. 이순신 생애 첫 번째 백의종군이었다. 그러나 1588년 1월 이일이 나선 여진족 보복전에서 이순신이 정공을 세움으로써 백의종군에서 벗어났고 반 년 뒤인 윤 6월, 그는 아산으로 낙향했다.

이때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그는 상당히 빠르게 승진했다. 1589년 2월 전라도순찰사 이광의 군관으로 복직되었다가 10월 선전관으로 옮겼고 12월 정읍현감에 제수되었다. 1590년 7월에는 유성룡의 추천으로 평안도 강계도호부 관내의 고사리진 병마첨절제사(종3품)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대신과 삼사의 반대로 취소되었고 한 달 뒤 평안도 만포진 병마첨절제사에 제수되었지만 대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1591년 2월 진도군수(종4품)에 임명되었다가 부임 전에 가리포(완도) 수군첨절제사(종3품)으로 옮겼고 2월 13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종3품)에 제수되었다. 그의 나이 마흔 여섯이었다.

□ 임진왜란 - 승전과 백의종군

조선 최대의 국난인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포로 출항하면서 발발했다. 7년 동안 이어진 전란으로 조선의 국토와 민생을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전쟁이 시작된 뒤 보름 여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5월 2일 선조는 급히 몽진해 6월 22일 압록강의 의주에 도착했다. 개전 두 달 만에 조선은 멸망 직전의 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순신은 임진년 5월 7일 옥포해전부터 계유년(1598년) 11월 18일 노량해전까지 스물 세 번의 전투에서 전승했다. 그는 왜란이 일어난 1년 뒤인 1593년 8월 삼두수군통제사로 승진해 해군을 통솔하면서 공격과 방어, 집중과 분산의 작전을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1597년 일본은 이중간첩으로 하여금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올 것이니 수군을 시켜 생포하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계략을 꾸몄다. 이를 사실로 믿은 선조는 명을 내렸으나 그는 일본의 계략임을 간파하여 출동하지 않았다. 가토 기요마사는 이미 여러 날 전에 조선에 상륙해 있었다. 이로 인해 이순신은 적장을 놓아주었다는 모함을 받아 파직당하고 서울로 압송되어 투옥되었다.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까지 몰렸으나 우의정 정탁의 변호로 죽음을 면하고 도원수 권율의 밑에서 두 번째로 백의종군하였다. 백의종군을 시작한 직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나흘 동안 말미를 얻어 장례를 치른 뒤 다시 종군했다.

□ 정유재란 - 복귀와 전사

소강상태였던 전쟁은 정유년(1597년)에 재개되었다. 그러나 그 해 7월 원균이 칠천량에서 대패하면서 수군은 궤멸되었다. 내륙에서도 일본군은 남원과 전주를 함락한 뒤 다시 서울로 진격하고 있었다. 전황이 급속히 악화되자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었고, 그에게 남은 전력은 함선 13척이었다. 그 함대를 이끌고 한 달 뒤 그는 명량해전에 나아갔고 133척의 적군과 대결하여 31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 승리로 조선은 다시 해상권을 회복하였다. 1598년 2월 고금도로 진영을 옮긴 뒤, 11월에 명나라 제독 진린과 연합하여 철수하기 위해 노량에 집결한 일본군과 혼전을 벌이다가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그는 1604년 선

무 1등 공신과 덕풍부원군에 책봉되고 좌의정에 추증되었고 1793년(정조 17년)에는 다시 영의정이 더해졌고 2년 뒤에는 그의 문집인 이충무공전서가 왕명으로 간행되었다.
이순신은 무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시문에도 능하여 <난중일기>와 시조, 한시 등 여러 편의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묘소는 아산시 어라산에 있으며 왕이 직접 지은 비문과 충신문이 건립되었다. 통영 충렬사, 여수 충민사, 아산 현충사 등에 배행되었다. 유품 가운데 <난중일기>가 포함된 <이충무공난중일기부서간첩임진장초>는 국보 제76호로 장검 등이 포함된 이충무공유물은 보물 제326호로, 명나라 신종이 무공을 기려 하사한 '충무 충렬사 팔사품'은 보물 제440호로 지정되었다.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는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장수를 몰랐다.
단지 해전에서 몇 번 이긴 그저 그런 다른 조선 장수 정도였을 거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내가 겪은 그 한 번의 이순신 그는 여느 조선의 장수와는 달랐다.
나는 그 두려움에 떨려 음식을 몇 날 몇 일을 먹을 수가 없었으며, 앞으로의 전쟁에 임해야 하는 장수로서 나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갔다.
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 하고 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 실학에서 배우는 인물 탐구 정약용

- 생애

첫째 단계는, 출생 이후 과거를 준비하며 지내던 22세까지를 들 수 있다. 그는 부친의 임지인 전라도 화순, 경상도 예천 및 진주 등지로 따라다니며 부친으로부터 경사(經史)를 배우면서 과거시험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16세가 되던 1776년에는 이익의 학문을 접할 수 있었다. 때마침 이 때 부친의 벼슬살이 덕택에 서울에서 살게 되어, 문학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던 이가환(李家煥)과 학문의 정도가 상당하던 매부 이승훈(李承薰)이 모두 이익의 학문을 계승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자신도 그 이익의 유서를 공부하게 되었다. 이익은 근기학파의 중심적 인물이었던 것이다.

정약용의 생애에서 두 번째 단계는, 1783년 그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이후부터 1801년에 발생한 신유교난(辛酉敎難)으로 체포되던 때까지를 들 수 있다. 그는 진사시에 합격한 뒤 서울의 성균관 등에서 수학하며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였다. 이 때 『대학(大學)』과 『중용(中庸)』 등의 경전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1789년에는 마침내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희릉직장(禧陵直長)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오른다.

이후 10년 동안 정조의 특별한 총애 속에서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동부승지(同副承旨) · 좌부승지(左副承旨), 곡산부사(谷山府使), 병조참지(兵曹參知), 부호군(副護軍), 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1789년에는 한강에 배다리[舟橋]를 준공시키고,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그는 이벽(李檗) · 이승훈 등과의 접촉을 통해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약용의 천주교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였다.

그는 천주교 신앙과 관련된 혐의로 여러 차례 시달림을 당해야 했고, 이 때마다 자신이 천주교와 무관함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그는 1801년의 천주교 교난 때 유배를 당함으로써 중앙의 정계와 결별하게 되었다.

정약용의 생애에서 세 번째 단계는, 유배 이후 다시 향리로 귀환하게 되는 1818년까지의 기간이다. 그는 교난이 발발한 직후 경상도 포항 부근에 있는 장기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 이어 발생한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의 여파로 다시 문초를 받고 전라도 강진(康津)에서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

강진 유배기간 동안 학문 연구에 매진했고, 이를 자신의 실학적 학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또한, 그는 조선왕조의 사회현실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개혁안을 정리하였다. 그의 개혁안은 『경세유표』 · 『흠흠신서』 · 『목민심서』의 일표이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저서는 유학의 경전인 육경사서에 대한 연구와 사회개혁안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정약용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저서는 연구서들을 비롯해 경집에 해당하는 것이 232권, 문집이 260여 권에 이른다고 한다. 그 대부분이 유배기에 쓰여졌다.

정약용의 생애에서 마지막 단계는, 1818년 57세 되던 해에 유배에서 풀려나 생을 마감하게 되는 1836년까지의 기간이다. 그는 이 시기에 향리에 은거하면서 『상서(尙書)』 등을 연구했으며, 강진에서 마치지 못했던 저술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매씨서평(梅氏書平)의 개정 · 증보작업이나 아언각비(雅言覺非), 사대고례산보(事大考例刪補) 등이 이 때 만들어졌다. 그는 또한 자신의 회갑을 맞아 자서전적 기록인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을 저술하였다. 그 밖에도 조선학 운동의 목적에서 외현손 김성진이 편집하고 정인보·안재홍이 교열에 참가하여 1934~1938년에 신조선사에서 간행한 154권 76책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도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정약용)>

□ 배워야할 점

그의 생애는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전 생애를 통해 위기에 처한 조선왕조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으며, 그 현실 개혁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진유학을 비롯한 여러 사상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가 유배과정에서 불교와 접촉했고,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는 다시 서학에 접근했다는 기록도 이와 같은 부단한 탐구정신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그는 학문연구와 당시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던 조선 후기 사회의 대표적 지성이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정약용)>

□ 역사에서 배우는 인물 탐구 : 맹사성

- 정치활동

1392년 조선 개국 직후 태조로부터 예의좌랑직을 제수받았다. 1408년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역모 사건을 취조하는 중에 태종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고 태종의 부마이자 조준의 아들인 조대림을 고문했다. 이 사건으로 맹사성은 왕과 왕족을 능멸하였다는 죄목으로 처형 직전까지 가게 되었으나 당시 영의정이던 성석린과 황희의 도움으로 간신히 죽음을 면하였다.

1416년 이조참판에 이어 예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생원시의 시관이 되어 권채 등 100인을 뽑았으며 왕이 친람한 문과복시에 득권관이 되었다. 그해 노부의 병환을 위해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되지 않고 역마와 약을 하사받았다. 이어 호조판서가 되어서도 노부의 병간호를 위해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1417년 충청도 관찰사에 제수되고 1418년 세종 즉위 후 공조판서가 되었고 이때도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그 뒤 1419년 이조판서와 예문관대제학이 되었고 그 이듬해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 1421년 의정부찬성사를 지냈다. 세종 13년에 좌의정이 되어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청백한 선비로도 유명한 일화를 많이 남겼다. <출처: 워키백과사전>

- 여진정벌

세종은 1433년 1만 5천명의 병력으로 파저강 유역의 여진족에 대한 정벌에 나섰다. 적 사망 170명, 포로 36명, 우마 170마리를 얻었으며, 아군의 피해는 전사자 4명, 부상자 20명에 불과한 대승리였다.

이 때 좌의정이었던 맹사성은 영의정 황희와 우의정 권진과는 달리 세종의 여진정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 작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했다. 정벌 시기, 군사 규모, 최윤덕을 중심으로 한 정벌군 조직, 7개 부대에 의한 동시다발적 기습 작전 등은 모두 맹사성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정벌 후 맹사성은 모든 공을 최윤덕에게로 돌려 그를 좌의정에 승진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좌의정 직을 사임할 각오까지 했지만, 세종은 최윤덕을 우의정으로 승진시켰다. 세종이 여러 신하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여진족 정벌을 통해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맹사성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이다.

<출처: 워키백과사전>

□ **배워야할 점**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은 높은 관직에 있었음에도 벼슬이 낮은 자를 대할 때면 관대를 갖추고 대문 밖에 나와서 맞아들였고, 상대가 물러날 때도 손을 모으고 몸을 구부린 채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거처하는 집은 초라했고, 바깥출입을 할 때도 가마 대신 소 타기를 좋아해 보는 이들이 그가 재상(宰相)임을 알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검소함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맹사성이 처음부터 그러한 인품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명문가의 자손으로 뛰어난 학식을 지녔던 그가 겸손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게 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하여 군수 자리에 오른 맹사성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고을을 돌아보던 중 존경받는 고승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절을 찾아갔다. 맹사성은 고승에게 "스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최고로 삼아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라고 물었다. 고승은 가만 웃고 있다가 "그건 간단합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맹사성은 화를 내며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인데, 내게 해줄 말이 고작 그게 전부요?"라고 거만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자 고승이 차나 한잔하고 가라며 붙잡았고, 이에 맹사성은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았다. 고승은 맹사성의 찻잔에 찻물을 따랐는데, 잔에 찻물이 차고 넘치는데도 계속 따르는 것이었다. 맹사성은 놀라서 소리치며, "스님, 찻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승은 태연하게 찻잔이 넘치도록 계속 차를 따랐다. 맹사성이 화를 내며 "찻물이 넘친다니까요!"라고 하자, 고승은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고는 맹사성을 지긋이 바라보고 말하였다. "찻물이 넘쳐 방바닥을 망치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고승의 말씀을 들은 맹사성은 흠칫 놀라며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고, 황급히 일어나 방문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그만 문틀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고 말았다. 고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그 이후 맹사성은 누구에게도 거만하지 않고, 겸손을 몸에 익히고 실천하며 선정(善政)을 베풀어 많은 이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한다. 짧은 일화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이다. <출처: 제233호 일각문 연구원 이호열>

□ 한국사 인물 탐구 이원익

- 생애

이원익은 조선시대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547년(명종 2)에 태어나 1634년(인조 12)에 사망했다. 1574년(선조 7) 황해도 도사가 되어 병정을 정비했고, 1587년 안주목사로서 기민 구휼과 민생 안정에 힘썼다. 임진왜란이 나자 명장 이여송과 함께 평양을 탈환했고 1595년에는 우의정 겸 4도체찰사로 일했다. 광해군 재위기에 왕에게 올린 직언이 수용되지 않자 병을 이유로 낙향했다. 인조반정 후 다시 영의정에 올랐다. 다섯 차례나 영의정을 지냈으나 청빈했고 인조로부터 궤장을 하사받았다.

15세에 동학(東學: 4학 중의 하나)에 들어가 수학해 1564년(명종 19) 사마시에 합격하고, 1569년(선조 2)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이듬해 승문원권지부정자로 활동하였다. 사람과 번잡하게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외출도 잘 하지 않는 성품이었다 한다. 유성룡(柳成龍)이 일찍부터 이원익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정자 · 저작 겸봉상직장을 거쳐 1573년 성균관전적이 되었으며, 그 해 2월 성절사 권덕여(權德輿)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북경(北京)에 다녀왔다. 그 뒤 호조 · 예조 · 형조의 좌랑을 거쳐 이듬 해 가을 황해도도사에 임명되었다. 이 시기 병적(兵籍)을 정비하면서 실력을 발휘, 특히 이이(李珥)에게 인정되어 여러 차례 중앙관으로 천거되었다.

1575년 가을 정언이 되어 중앙관으로 올라온 뒤, 지평 · 헌납 · 장령 · 수찬 · 교리 · 경연강독관 · 응교 · 동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583년 우부승지 때 도승지 박근원(朴謹元)과 영의정 박순(朴淳)의 사이가 좋지 않자 왕자사부 하락(河洛)이 승정원을 탄핵하였다.

다른 승지들은 도승지와 영의정의 불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화를 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원익은 동료를 희생시키고 자신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상주해 파면되어 5년간 야인으로 있었다.

그 뒤 1587년 이조참판 권극례(權克禮)의 추천으로 안주목사에 기용되어, 양곡 1만여 석을 청해 기민을 구호하고 종곡(種穀)을 나누어주어 생업을 안정시켰다. 또, 병졸들의 훈련 근무도 연 4차 입번(入番)하던 제도를 6번제로 고쳐 시행하였다.

이는 군병을 넷으로 나누어 1년에 3개월씩 근무하게 하던 것을 1년에 2개월씩으로 고쳐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킨 것이다. 이 6번 입번제도는 그 뒤 순찰사 윤두수(尹斗壽)의 건의로 전국적인 병제로 정해졌다.

그리고 뽕을 심어 누에 칠 줄을 몰랐던 안주 지방에 이원익이 권장해 심어 백성들로부터 이공상(李公桑: 이원익에 의해 계발된 蠶桑이라는 뜻)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한다.

그 뒤 임진왜란 전까지 형조참판 · 대사헌 · 호조와 예조판서 · 이조판서 겸 도총관 · 지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조판서로서 평안도도순찰사의 직무를 띠고 먼저 평안도로 향했고, 선조도 평양으로 파천했으나 평양마저 위태롭자 영변으로 옮겼다.

이 때 평양 수비군이 겨우 3,000여 명으로서, 당시 총사령관 김명원(金命元)의 군통솔이 잘 안되고 군기가 문란함을 보고, 먼저 당하에 내려가 김명원을 원수(元帥)의 예로 대해 군의 질서를 확립하였다.

평양이 함락되자 정주로 가서 군졸을 모집하고, 관찰사 겸 순찰사가 되어 왜병 토벌에 전공을 세웠다. 1593년 정월 이여송(李如松)과 합세해 평양을 탈환한 공로로 숭정대부(崇政大夫)에 가자되었고, 선조가 환도한 뒤에도 평양에 남아서 군병을 관리하였다. 1595년 우의정 겸 4도체찰사로 임명되었으나, 주로 영남체찰사영에서 일하였다.

이 때 명나라의 정응태(丁應泰)가 경리(經理) 양호(楊鎬)를 중상모략한 사건이 발생해 조정에서 명나라에 보낼 진주변무사(陳奏辨誣使)를 인선하자, 당시 영의정 유성룡에게 “내 비록 노쇠했으나 아직도 갈 수는 있다. 다만 학식이나 언변은 기대하지 말라.” 하고 자원하였다. 그러나 정응태의 방해로 소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 선조로부터 많은 위로와 칭찬을 받고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이첨(李爾瞻) 일당이 유성룡을 공격해 정도(正道)를 지켜온 인물들이 내몰림을 당하자 상소하고 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그 뒤 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가 그 해 9월 영의정에 복직되었다.
이 때 정영국(鄭榮國)과 채겸길(蔡謙吉)이 홍여순(洪汝諄) · 임국로(任國老)를 두

둔하면서 조정 대신을 공격하자 당파의 폐해로 여기고 이의 근절을 요구했고, 또 선조의 양위(讓位: 임금이 왕위를 다음 임금이 될 사람에게 물려줌)를 극력 반대하고 영상직을 물러났다.

1600년 다시 좌의정을 거쳐 도체찰사에 임명되어 영남 지방과 서북 지방을 순무하고 돌아왔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에 녹훈되고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에 봉해졌다.

광해군 즉위 후 다시 영의정이 되었을 때 전쟁 복구와 민생 안정책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호조참의 한백겸(韓百謙)이 건의한 대동법(大同法)을 경기도지방에 한해 실시해 토지 1결(結)당 16두(斗)의 쌀을 공세(貢稅)로 바치도록 하였다.

광해군이 난폭해지자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비에 대한 효도, 형제간의 우애, 여색에 대한 근신, 국가 재정의 절검 등을 극언으로 간쟁했고, 임해군(臨海君)의 처형에 극력 반대하다 실현되지 못하자 병을 이유로 고향으로 내려갔다.

정조(鄭造) · 윤인(尹宎) 등이 대비폐위론을 주장하자,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극렬한 어구로 상소해 홍천으로 유배되었으며 뒤에 여주로 이배되었다.

1623년(인조 1)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자 제일 먼저 영의정으로 부름을 받았다. 광해군을 죽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인조에게 자신이 광해군 밑에서 영의정을 지냈으니 광해군을 죽여야 한다면 자신도 떠나야 한다는 말로 설복해 광해군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80세에 가까운 노구로 공주까지 왕을 호종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도체찰사로 세자를 호위해 전주로 갔다가 강화도로 와서 왕을 호위했으며, 서울로 환도하자 훈련도감제조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고령으로 체력이 약해져 사직을 청하고 낙향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 왕의 부름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배워야할 점**

- 청백리 정신

65년 공직생활 중 44년을 재상으로 지내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행정가였으면서도 평생 재산은 두어 칸짜리 오두막이 전부였다고 한다. 직접 돗자리를 짜서 끼니를 이을 만큼 청백리를 몸소 실천한 사람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신뢰를 쌓을 수 없고 신뢰가 없으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오리 이원익 청백리 정신은, 임금과 조정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신망 높은 청백리 재상으로 존경받았다.

- 자기 관리

일체의 부정에 연루되지 않았고 사사로운 청탁을 행한 적도 없었다. 그의 자기 관리는 당시 빈번했던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성품이나 처신이 본래 청백하였고 공직 윤리에 대한 의식도 철저하였다. 그는 품성이 명민하여 사리판단이 정확하였으며, 정사에 근면하고 정신을 집중하였으므로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 정확 신속 간명 그리고 현장 중심

그가 중시한 것은 행정의 신속함과 간명한 행정이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처리하기도 어렵고 부정이 개입하기 쉽게 된다. 지방관들은 의례 성과를 올리는 일에 급급하기 쉽지만 그는 성과 달성보다는 누적된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그리고 새로 일을 만들기 보다는 일을 줄여 나가는 것이 행정의 요체임을 설파하였다.

□ 한국역사에서 배우는 인물 탐구 이항복

- 생애

형조판서와 우참찬을 지낸 이몽량(李夢亮)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태어나서 사흘 동안은 울지도 않고 젖을 먹지도 않아 모두들 걱정을 하였는데, 점성술사가 보고 장차 큰 인물이 될 아기라고 예언을 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영특하고 자라면서는 해학에도 뛰어나 만인의 귀염을 받았음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9세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으나 16세에는 어머니마저 여의었다. 어린 시절에는 놀기를 좋아하여 동네 불량배의 우두머리로 세월을 헛되게 보냈었으나 어머니의 교훈으로 학업에 정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상을 치른 뒤 학궁(學宮)에 들어가 학문이 더욱 이루어졌다. 영의정을 지낸 권철은 이항복의 이웃에 살고 있었다. 이항복의 인물됨됨이를 알아본 권철은 아들 권율에게 이항복을 사위를 삼도록 권하여 이항복은 19세에 권율의 딸과 혼인하였다.

1580년(선조 13년) 문과에 급제하여 1581년 검열(檢閱)이 되었다. 이 해에 이덕형도 20세에 문과에 을과 1인으로 급제하여 함께 벼슬을 시작한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582년(선조 15년)에는 장인어른인 권율도 46세에 문과에 병과 1인으로 급제하여 뒤늦게 벼슬을 시작한다.
<출처: 워키백과사전>

□ 배워야할 점

조선왕조 5백년간 녹선된 청백리는 2백여 명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청렴의 상징이 되었던 한 분, 이항복 선생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항복(1556~1618)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선조 13년(1580)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호조참의 동승지 등의 벼슬을 거치고 병조판서와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당쟁의 조정에 힘썼고 후에 청렴한 관리로서 ‘청백리(淸白吏)’에 추대되었다.

1617년 선조의 정비인 인목대비가 덕수궁에 유폐되고, 평민으로 만들자는 폐모론에 극렬하게 맞섰던 그는 결국 함경도 북청에 유배되어 별세하였다. 세상을 떠나기 전 “나라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 이러한 견책을 받았으니 내가 죽거든 조복으로 염을 하지 말고, 평소에 입던 옷과 띠를 사용하라” 말로 근검절약의 본을 보여주었다. 백사라는 호처럼 깨끗한 모래 한 알로 평생을 산 이항복의 일생은 선비정신의 구현이자 인간 승리의 표상이었다.

공신의 자리에 오르고 영의정까지 지낸 사람이 청백리에 녹선 된 사실 자체가 그를 대변해 준다. 청렴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청광의 상태도 되지 않고 해학과 웃음 속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조선 왕조 최대의 위기 상황이던 임진왜란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국난을 극복한 사람이 이항복 선생이었다.
이항복은 많은 벼슬살이를 했지만 그에 맞지 않게 셋집살이를 했다고 한다. 권력과 부, 명예가 대대로 세습되던 조선시대에 이처럼 청빈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가히 청백리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축년(1613년) 옥사가 일어났을 때의 일이다. '이춘복'이란 사람이 고발되어, 의금부 도사가 경내를 수색했지만, 문제의 이춘복은 잡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원복'이란 사람을 잡아왔다. 그럼에도 국청에서 심문이 있었는데 재판장이던 이항복이 "내 이름도 비슷하니 나부터 먼저 진술하여 변명해야 죄를 면하겠구만"이라고 하자, 옆에 있던 좌의정, 우의정이 웃었다. 일순가에 삼엄했던 분위기가 바뀌어 옥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이항복의 기발한 농담으로 무고한 백성의 목숨을 건진 재판이었다.

이항복 선생의 일화처럼 청렴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공직생활을 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청렴이란 공정한 과정에 따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부터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어 보훈행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렴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출처: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